

코로나 확산 못 따라가는 백신 접종

새해 됐지만 여전히 '우울한 1월' 변이 코로나 확산에 힘겨운 싸움 유럽 각국 봉쇄령 시행·연장 대다수 빈곤 국가 접종 순위 밀려

2021년은 코로나19 백신과 함께 시작되면서 대유행 종식에 대한 희망이 커졌지만, 전염이 접종 속도보다 빨라 각국이 또다시 봉쇄령을 동원하는 등 힘든 싸움을 이어가고 있다. 특히 지난 연말 연휴의 여파로 코로나19 환자 수가 오히려 늘어나고 있고 전염력이 더 강하다고 알려진 변이 바이러스가 발견된 국가가 많아져 백신이 아직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올해 1월은 여전히 어려운 시기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AP통신이 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바이러스 재확산에 유럽 각국서 봉쇄령 시행·연장=세계 최초로 코로나19 백신 사용을 승인한 영국과 그 뒤를 이은 미국의 일부 지역에서는 이미 2차 접종까지 완료한 시민이 늘고 있으나, 엄청난 수요에 비해 공급은 여전히 부족한 상황이다.

백신을 가장 먼저 접종한 영국에서 코로나19 일일 신규 확진자가 최다치를 기록하고 입원율이 치솟자 잉글랜드와 스코틀랜드는 국민보건서비스(NHS)의 부담 가중을 피해야 한다며 강력한 봉쇄령을 시행했다.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는 5일 "감염성이 큰 변이 바이러스 탓에 확진자가 급증해 영국 국민 50명 중 1명이 감염됐고, 런던은 30명 중 1명 비율이다"라며 봉쇄령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독일과 이탈리아는 지난달 성탄연휴에 시행한 봉쇄령을 연장했고, 스페인은 여행 제한 조치를 유지했다. 덴마크는 집합 가능한 인원수를 10명에서 5명으로 줄였고, 프랑스는 더 강화된 이동 제한 정책을 예고했다.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가 발견된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도 늘어나는 사망자 수로 장례에 쓸 관이 부족해지고 늦은 밤까지 시신 처리 절차가 이어지고 있다고 AP통신은 전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LA)카운티의 응급의료서비스(EMS)실은 구급대에 '생존 가능성이 거의 없는 환자는 병원으로 이송하지 말고 산소를 아껴 쓰라'는 지침을 내렸다고 CNN이 전했다.

◇1월에도 확진자 계속 증가...백신 접종 요원한 국가도=남미의 상황도 심각하다. 특히 중환자 수가 지난해 8월부터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는 브라질에서는 코로나19 사망자의 시신을 수습하기 위해 야외에 냉장실을 설치할 정도다. 멕시코의 수도 멕시코시티에서도 확진자가 지속 증가해 다른 지역의 의료진이 파견되고 있다.

유럽, 남미 대륙보다 확진자 수가 상대적으로

적은 국가에서도 최근 코로나19가 확산하는 추세다. 지난달 중순 코로나19 확산 진정세를 보였던 태국에서도 최근 들어 수천 명이 양성 판정을 받자 당국은 수도 방콕을 비롯한 여러 지역에 봉쇄령을 가했다. 중국도 새해 명절 '춘절'을 앞두고 휴교령과 함께 이주노동자에게 귀향하지 말라는 공지를 내렸다. 일본 역시 긴급사태를 발령해 입국 제한 조치를 강화하기로 했다.

AP통신은 네덜란드가 6일(현지시간) 백신 접종을 시작해 유럽연합(EU) 국가 중 가장 늦다는 비판을 받고 있으며, 호주는 3월까지도 접종 계획이 없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이어 인도는 8월까지 3억 명에 백신을 접종하겠다고면서 세계에서 최대 규모의 백신 접종 프로그램에 돌입했지만, 대다수 빈곤 국가들은 접종 순위에서 밀려나 있다고 보도했다. /연합뉴스



영국 런던의 타워 브리지를 통과하는 도로가 5일(현지시간)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는 이날 0시부터 잉글랜드 전역을 대상으로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3차 봉쇄 조치를 도입한다고 발표했다. /연합뉴스

미 애리조나 주지사 아들 '노마스크' 파티 비난

아버지 집콕 당부 기간 파티 즐겨

미국 애리조나 주지사가 연휴 기간 주민들에게 외출 자제를 당부한 사이 20대 아들은 마스크도 쓰지 않고 파티에 다녀 비판이 일고 있다.

5일(현지시간) 미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공화당 소속인 애리조나 주지사 더그 듀시의 20대 아들 잭은 지난해 12월 30일 인스타그램에 영상을 하나 올렸다. 많은 사람이 신나는 음악 속에 춤을 추며 파티를 즐기는 영상이었다. 아들 마스크를 쓰지 않은 채 가까이 서 있었고 역시 마스크를 쓰지 않은 잭이 누군가와 악수를 하는 모습도 포함돼 있었다.

아버지인 듀시 주지사가 주민들에게 성탄절부터 새해로 이어지는 연휴에 집 안에 머물면서 코로나19 확산 억제를 위한 공중보건 지침을 지키라고 주민들에게 당부한 시점이었다.

정작 아들은 많은 이들과 떠들썩하게 파티를 즐

기는 영상을 보란 듯이 올린 것이다. 영상이 언제, 어디서 촬영된 것인지는 파악되지 않았다.

현지 신문인 애리조나 리퍼블릭의 보도로 알려졌다. 잭은 해당 매체에 실수했다고 인정하면서도 자신이 정치인은 아니지 않느냐는 식으로 항변했다.

듀시 주지사 소환을 추진했던 단체 '책임있는 애리조나'는 "주지사의 아들조차 아버지의 약한 권고를 지키지 않는다면 주민들이 지킬 것이라고 어떻게 기대하겠느냐"면서 "(확산) 억제 조치를 지금 시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미국에서는 콜로라도주 덴버 시장이 추수감사절에 주민들에게 여행을 하지 말라고 당부하고는 가족을 만나겠다고 비행기에 탑승해 비난받았다.

애리조나는 주지사가 공화당 소속이라 코로나19 확산 억제를 위한 활동 제한이 비교적 덜한 곳이다.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거나 통금 등을 적용하지 않았다. /연합뉴스

"중 시노팜백신 부작용 73가지"

중 전문가 "세계 최고로 위험"

중국이 자국 제약업체 시노팜의 코로나19 백신을 승인한 가운데, 중국 백신 전문가가 심각한 부작용 우려를 제기하고 나섰다.

6일 홍콩 명보에 따르면 상하이 백신 전문가인 타오리나는 지난 4일 웨이보에 올린 글에서 "시노팜백신의 설명서를 보니 부분과 전신 부작용이 총 73건에 이르렀다"면서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백신"이라고 지적했다.

타오리나는 "설명서를 읽고 난 후 (놀라서) 호흡을 골라야 했다"면서 "접종 부위 통증과 일반적인 두통 외에도 고혈압과 미각상실, 시력감퇴, 요실금 등 심각한 부작용이 일어날 수 있다"고 밝혔다. 중국 의약품 당국은 지난달 30일 시노팜의 코로나19 백신을 조건부 승인했다. 시노팜은 임상 3상 시험 결과 데이터를 공개하면서 해당 백신의 코로나19 예방 효과가 79.34%이며, 항체 양성률은 99.52%에 달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카타르와 외교관계 회복 사인하는 사우디 왕세자 5일(현지시간) 사우디아라비아 북서부 알울라에서 열린 연례 걸프협력회의(GCC) 정상회의에서 무함마드 빈 살만 사우디 왕세자가 문서에 사인하고 있다. 이날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UAE), 바레인, 이집트 등 아랍권 4개국은 카타르와 3년 반 동안의 단교를 끝내고 외교관계를 회복하기로 했다. /연합뉴스

홍콩, 범민주진영 인사 50여명 무더기 체포

국가보안법 위반 '국가 전복' 혐의

홍콩 범민주진영 인사 50여명이 6일 오전 국가보안법(홍콩보안법) 위반 혐의로 무더기 체포됐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등에 따르면 우치와이 전 주석을 포함해 홍콩 제1 야당인 민주당 인사 최소 7명과 공민당의 앨빈 응 주석 등이 체포됐다. 이들은 지난해 9월 6일로 예정됐던 입법회(홍콩 의회) 의원 선거를 앞두고 그해 7월 11~12일 지역구별 야권 단일 후보를 정하는 비공식 예비 선거를 조직하고 참여해 국가 전복을 꾀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홍콩 정부는 해당 예비 선거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이에 참여한 경우 처벌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지만, 60만여명의 유권자가 참여했다.

이에 대해 홍콩 시민들이 그 직전 시행된 홍콩보안법에 대해 무언의 저항 의사를 보인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해당 예비 선거는 2019년 11월 구의원 선거에서 압승을 거둔 범민주진영이 후보 난립

과 표 분산 등을 막고 입법회 의원 선거에서 이기 위해 처음으로 홍콩 전역에 도입한 것이다.

이를 통해 처음으로 야권이 전체 70석 가운데 과반을 차지하겠다는 구상이었다. 홍콩 정부는 해당 예비선거가 홍콩보안법 및 선거법 위반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지만, 예비선거는 뜨거운 열기 속 치러졌다.

그러나 이 예비선거 직후인 7월 31일 홍콩 정부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이유로 입법회 의원 선거를 1년 연기한다고 기습 발표, 결국 선거는 열리지 않았다. 홍콩 경찰은 이날 이미 불법집회 조직 혐의 등으로 수감 중인 조슈아 왕에 대해서도 그가 홍콩보안법을 위반했다며 그의 자택을 수색했다.

SCMP는 이날 경찰의 무더기 체포작전은 홍콩보안법 시행 후 최대 규모라고 밝혔다. 홍콩보안법은 국가 분열, 국가 정권 전복, 테러 활동, 외국 세력과의 결탁 등 4가지 범죄를 최고 무기징역형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한다. /연합뉴스

'스마트 방식' 주머니...中 기업 직원 감시 논란

중국의 한 기업이 '스마트 방식'으로 직원들의 근무 태도를 감시했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6일 중국 글로벌타임스에 따르면 항저우에 있는 어느 기술기업의 직원은 최근 온라인에서 전 직원 이 회사에서 스마트방식을 지급받았는데 이 방식은 심박수와 앉은 자세 등을 감지할 뿐만 아니라 근무 시간에 얼마나 의자에 앉아있었는지도 파악하는데 활용된다고 폭로했다.

이용자가 오랫동안 움직이지 않을 경우 방식이 경보를 울린다. 방식이 수집한 데이터는 고용주도 접근할 수 있는데 이 때문에 이 회사가 직원을 불법 감시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봉황망에 따르면 이 업체 직원은 인터넷에 올린 글에서 인사부 직원과 마주쳤을 때 '왜 매일 아침

10시부터 10시반까지 자리를 비우나? 사장님이 보너스 깎을 수 있으니 조심하라'는 말을 듣고 간단히 서늘했다고 전했다. 그는 비슷한 주의를 받은 사람은 자신만이 아니었다면서 "사장이 왜 방식을 주나 했는데 알고보니 감시기기였다"고 말했다. 업체 측은 자사가 개발한 스마트 방식을 테스트하려던 것이었을 뿐 직원을 감시하려는 의도는 없었다고 해명했지만 논란은 가라앉지 않았다. 일부 온라인 이용자들은 스마트 방식이 직원을 교묘하게 감시하는 수단에 지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2019년에도 난징에서 환경미화원들이 스마트 팔찌를 지급받아 논란이 됐다. 이 스마트 팔찌는 위치 파악 기능이 있는데 미화원들이 같은 자리에서 20분 넘게 쉬면 경고를 보낸다. /연합뉴스

귀할수록 전문 브랜드 비타민하우스

45 북위 45도 이상
흑한에서

15 15년을 자란
차가버섯을 엄선

12 12배 고농축으로
영양을 꽉 채운

시베리안 차가버섯



Vitamin House
구입문의 1588-8529

비타민하우스 전속모델 서경석